천연요새 속 선민의 당당함

(오바댜 1장 1~21절)

1.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2.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3.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4.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천연요새 속 선민의 당당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천연요새 속 선민의 당당함'
오바댜서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선민이란 어디를 가든지 천연요새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능적인 욕구는 안전을 추구하려는 자기방어 혹은 자기보호의 욕구입니다. 그러나 선민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언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마음에 근심거리이자 안타까움이 있다면 교인들이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는 십자가 생활화를 외치면서 교인들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휴가동안에 여러분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십자가 복음이 사람 자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제목의 '천연요새 속 선민의 당당함'과 관련지어서 연상되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만났던 분들 중에 한 분이신 이 집사님께서는 조선시대 때처럼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 선을 보고 나서 곧바로 결혼을 결정하고 한 달 만에 식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집사님의 결혼생활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시작되었고 이민을 와서 사신지가 벌써 30년이 다 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잊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을 와서 많은 이웃들과 만남을 가졌지만 자기보다 못 배운 여자는 만난 적이 없고, 또 자기보다 돈이 없는 여자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덧붙이셨는데 그 말씀을 듣던 선교사님과 저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도 나보다 당당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분이 지금은 LA에 살고 계시지만 시카고에서 10년 넘게 사셨는데 그곳에서 십자가 복음을 처음으로 듣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시면서 당당한 삶을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나보다 못 배운 여자도 없고 나보다 가난한 여자도 없지만 나보다 당당한 여자도 없더라'는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학력에 있어서 꼴찌이고 재정문제에 있어서도 꼴찌였으나 당당함에 있어서는 1등이었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는지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당당함과 변화를 염두에 두고 오바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깊은 문제를 던져줍니다.
오바댜서가 기록된 시기는 남 왕국 유다가 망한 이후이거나 망하기 직전입니다. 남 왕국 유다는 BC.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또 그로부터 5년 후에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에돔이 망하게 되는데 오바댜서는 그 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혹은 망하기 직전에 포로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라고도 여겨집니다. 이러한 시기에 특별히 에돔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대체 왜 에돔이 예언의 대상으로 선택되었는지 상당히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젊은이들이 "마음에 꽂힌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바댜 선지자에 마음에 꽂힌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야곱과 한날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쌍둥이 형제 중에서 야곱은 선민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지만 에서는 선택 바깥에 놓으셨습니다. 이후에 에서의 후손들은 요단강 아래의 사해 남동쪽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에돔은 오바댜서가 쓰일 때까지는 건재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선택받은 야곱의 후손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진즉에 망했고 남 왕국 유다조차도 망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깡그리 무너졌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바댜 선지자의 마음에는 과연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선택 바깥에 있었던 에돔은 여전히 건재하였으나 선택 안에 있었던 선민들의 나라는 망하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음은 비단 오바댜 선지자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남 왕국 유다의 선민들 중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또한 동일한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

바다서에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택 밖에 놓였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상황을 보면서 선택받음이 무엇인가를 역설적으로 말씀해주십니다.

에돔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목에 언급한 천연요새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돔은 사해 남쪽에 거주하던 민족으로써, 세일 산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인 페트라(Petra)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요르단에 존재하는 이곳은 과거 중동지방의 내륙무역 중심지로써 바로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3.5km의 바위 협곡을 지나야만 도달할 수 있는 이곳은 대규모의 군대가 공격하더라도 소수의 인원으로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방어의 요충지였습니다. 가파른 절벽이 방어벽이 되어주었고 산 곳곳에 동굴이 있어서 외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피신처도 많았습니다.

본문에서 천연요새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에돔 사람들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인 유다 민족이 망했지만 자신들은 건재한 것을 보며 천연요새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천연요새가 없었기에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점을 오바댜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본문 마지막을 보면 선민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예언을 한 이유는 사필귀정의 결말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에돔과의 비유를 통해 선민의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에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결말이 찾아올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에돔이 거주하는 페트라야말로 천연요새였지만, 그러나 오바댜 선지자가 보았던 선민의 모습이야말로 천연요새였습니다. 가파른 세일 산이 있고 좁은 협곡을 통과해야 하며 곳곳에 동굴이 있어서 피신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연요새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야말로 바로 천연요새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울타리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물론 남 왕국 유다는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깡그리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오바댜 선지자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이것은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태풍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찻잔이 깨질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혹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민에게는 이 모든 일이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강력한 천연요새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망하기 직전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에돔을 예로 들어 예언을 했던 것

입니다.
에돔이 자랑하는 난공불락의 천연요새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비록 망한 것처럼 보이는 선민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에돔은 5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망하게 되고, 이후에 바벨론이 사라진 뒤에도 회복되지 못한 채 알렉산더 대제의 부하 장군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잔류민까지도 유대 민족에 흡수되거나 흩어져 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그 당시 망해서 없어진 것처럼 보였던 선민들은 오늘 말씀의 상징적 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민이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상징으로써 유대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역사적 현실을 볼 때에 오바댜서가 기록될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진정한 의미의 천연요새로써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봅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형편에 놓여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찻잔 안에서 일어나는 태풍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든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든 실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선민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 타인에 대해서도 그가 선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하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선민이라면 몸을 입고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대한 그리움을 갖습니다.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좋아합니다. 물론 선민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육체의 감각들로 인해서 마음은 흔들리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마음의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으로 삼고자 하는 대상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마음을 완전히 해갈시키는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고자 하는 굳건한 믿음이 존재합니다. 비록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늘에 대한 그리움과 하늘을 좋아함에 대한 확신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선민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렇지 않다고 해서 선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였으나 선민의 정체성을 되찾은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시절에 그 어떤 교인들도 바울이 선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이 선택이 있었기에 하늘의 그리움을 회복하고 선민으로써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삼아 선민이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 이하를 보면 에돔이 천연요새를 나라의 울타리 삼은 결과 갖게 된 욕구가 나타납니다. 금고 같은 천연요새에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쌓아두고 싶어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천연요새와 같은 나라 안에 부를 축적하고 소유를 늘려간다면 그것이 잘 지켜지고 영원히 유지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갖는 특성이 드러납니다. 기본 생활이 안정되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에돔 또한 이러한 생각 아래에서 천연요새와 같은 도시에 많은 소유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 선지자는 이 모든 소유가 깡그리 없어질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선민의 소유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민의 소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은 거저 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시고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비용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먼저 우리 앞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서 영원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기쁨에 동참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중에서 선민을 선택하셨습니다. 즉 선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째로 제시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선민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소유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움이나 지혜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소유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자녀의 형통을 이루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두 소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소유의 대상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를 제시하시며 선택하신 선민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오바댜 선지자는 첫째로 에돔의 난공불락 천연요새의 기반이 되는 세일 산을 비유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여전히 선민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실제로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회복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들을 선택

하며 갖고 싶어 할 때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유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세상의 모든 대상들을 젖혀둔 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에돔은 세일 산을 기반으로 천연요새를 울타리 삼아 세상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자 했지만 결국 그것들은 깡그리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단 하나의 소유로 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게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이러한 깨달음을 선민들에게 전함으로써 포로로 잡혀가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선민들의 소유는 털끝하나 상실되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집이나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기업이나 건강 등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대상들은 진정한 소유가 아닙니다. 집이 없어졌어도 나의 소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사기 당해 잃었어도 나의 소유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두 분 사이에서 교통하시는 성령님 외에는 다른 소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치들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진정한 천연요새 속에서 머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해칠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유는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 몸조차도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를 해치려는 자들 앞에서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소유로 삼는다면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당당함이 생겨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나의 소유인데 대체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소유해야 하는 하나님의 양은 이 세상 것들이 갖고 싶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도 갖고 싶지 않을 때에 당당해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집사님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나보다 못 배운 여자도 없고 나보다 가난한 여자도 없지만 나보다 당당한 여자도 없더라'는 말씀이 정말 명언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경이 어떠십니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잃어버리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해서 소유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소유로 삼고 기쁘고 만족하는 동안 내게 주어지는 모든 가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재료일 뿐이지 나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몸조차도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한 재료이기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피해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몸이 죽는 것을 손해 본다고 생각했다면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도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몸으로 다윗처럼 왕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뜻을 펼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도 그 자리가 나의 소유가 아니며 순교해서 몸을 잃어도 나의 소유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문제시 했던 것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몸이 아니라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의 죄악 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지셨다면 다 가지신 것입니다. 또 선민이라면 하늘을 그리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운 하나님을 내 소유로 선택하고 실제로 갖는 방법은 십자가 생활화뿐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귀에 들리는 것에 흔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에 사로잡히는 마음에 대해 죽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천연요새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삶에서 만끽하며 당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갖는 하나님 부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선택해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나의 유일한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선택받은 자로 천연요새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하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은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